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솔바람 적삼에 불어 옷깃이 훑날린다

귀래전거도(歸來田居圖)

사찰 경내를 다니면, 여기 저기 감국(甘菊)이 피어있고, 가을을 표상(表象)하는 특초는 꽃향기와 구름 높은 하늘에선 약한 햇볕을 비추고, 이제 서리 내리는 시기가 되어, 땀이 가슴 한 구석이 쓸쓸하기도 하고, 잊혀진 추억을 곁에서 희미하게 생각나게 하는 계절이 돌아온 것 같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 전부터 관상용(觀賞用)으로 키우던 식물은 국화(菊花)였다. 중국의 당나라 시대(唐代) 이전부터 심었다는 기록이 있다. 다른 화초들보다 훨씬 사람의 손에 익은 화초이다. 많은 종류가 개량되고, 재배되어 가을을 상징하는 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국화는 일설(一說)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감국을 종자로 해서 생겨난 식물이란 이야기도 있는 걸 보면, 우리에게 친근하고, 정이든 식물이기도 하다. 국화를 차로 만들어 끓여 먹으면, 휘발성 정유(精油)를 가진 국화차는 머리를 맑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열이 많은 사람은 열을 내리고, 몸이 찬 사람은 따스하게 하며, 피부미용이나 감기에도 효과가 있고, 아토피나 동맥경화에 효과가 있어서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서 노폐물을 없애주고, 노화를 방지하기도 한다고 한다.

귀래사(歸來來禪)를 소재로 하는 많은 그림들을 보면, 대개 접잡은 중년선비가 소나무에 기대고 서서 국화꽃 핀 울타리를 뒤로 하여 상념에 잠긴 그림들이 많다. 이 선비가 바로 중국 동진(東晉)과 송대(宋代)에 살았던 농부시인 도연명(陶淵明)이다.

그의 나이 마흔하나, 상관인 지방관리에게 의견을 정대하고, 고개 숙여 절하기를 거부하고, 최후의 관직인 팽택현(彭澤縣)의 지사(知事)를 사임하고, 시골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심경을 구구절절하게 읊은 시가 바로 이시다.

양(梁)의 소명태자(昭明太子) 소통(蕭統)의 <도연명전(陶淵明傳)>에는, 감독관의 순시를 의관속대(衣冠束帶)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오두미(五斗米:쌀 다섯말, 얼마 안되는 봉급)를 위해 향리의 소인(小人)에게 허리를 굽힐 수 없다고 하며, 그날로 사직하였다고 전한다.

그의 시, 귀래사의 한 구절을 차분한 마음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담담(淡淡)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어느덧 이르러 집이 바다라 보여  
기쁜 마음에 달리듯이 집으로 가네  
사내아이와 종이 나와 반기가 맞이하듯  
어린 아들은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세 갈래 오솔길에 잡초 우거졌어도  
소나무와 국화는 그대로 남아 있네



귀래전거도'

귀래사에 국화꽃 뒤 상념에 든  
선비는 송대의 농부시인 도연명

어린 아들 손잡고 방으로 들어서니  
솔 향아리 가득히 솔이 나를 반기네

솔 단지를 가져와 스스로 잔에 따라 마시며  
뜰의 나무를 지그시 보며 미소 짓네  
남쪽 창가에 몸을 기대어 의기양양해 하니  
무릎 하나 들일만한 작은 집이지만 이 얼마나  
편한가.

세 갈래로 나뉜 길에서 소나무에 기대어 서서, 국화꽃 향기를 맡으며, 고향에 돌아온 안도감(安堵感)을 표현하는 그림은 그 이후 오랫동안 많은 화가들이 즐겨 그리는 소재가 되었고, 구한말 당대의 대가들인 심전(心田) 안중식(安中植), 소림(小琳) 조석진(趙錫晉)들까지도 즐겨 그린 도속화의 주요 소재였다. 돌아온 이후, 도잠(陶潛)은 20여 년 동안 봄이 되면 밭을 갈고, 씨 뿌리고, 지내엔 책을 읽는 삶을 살며 빈궁한 나날을 즐기다가 자연으로 돌아가 그 향기로운 이름을 후세에 남겼다. 중이 살아가는데, 이판(理判)·사판(事判)이 따로 있겠느냐마는, 요즘 들어 소임을 놓고, 조용히 읽고, 앉고, 소소(疏疏)한 숲길을 걸으며, 길지 않은 생을 마음 편히 살다가 가야겠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동화사 포교국장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봄이 한 번, 가을이 한 번



‘아하! 공자는 노나라 240년 간의 사적을 추려서 책을 만들고 <춘추(春秋)>라고 이름을 지었다. 240년 동안의 외교와 전쟁에 관한 사적도 단지 한 번 봄(春)에 꽃이 피고, 가을(秋)에 낙엽 지는 덧없는 인생의 짧은 시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박재완의 <열

하일기> 중, ‘춘추’, 그 두 글자의 간격은 그토록 먼 것이며 또한 한순간처럼 가까운 것이었다. 누군가 설악산 오솔길 끝에 집을 짓고 그 이름을 ‘무금(無今)’이라고 했다. 백담사 무문관 무금선원(無今禪院). 돌담 위에 낙엽이

쌓여있다. 공자의 ‘춘추’처럼 ‘무금(無今)’이란 두 글자도 그 덧없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리라. 지난 봄에 꽃이 피었고, 이제는 낙엽이 진다. 꽃이 피고, 꽃이 지는 ‘지금(今)’은 늘 사라지고 없는(無) 것이다. 우리 사는 것이 봄이 한 번, 가을이 한 번 있을 뿐이다.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강상 조선 백암성총 선사외 ‘산에 들며(入山)’

산에 들며 물아일체가 되다

行行過石溪 (행행과석계)  
細徑通疎竹 (경세통소죽)  
不覺濕禪衣 (불각습선외)  
鶴搖松露滴 (학요송로적)

한참 걸어 징검다리 시내 건너니  
오솔 길 성긴 대숲으로 통하네.  
알지 못하는 새에 가사가 축축하네.  
학이 흔든 솔 이슬방울에

백암성총(柏庵性聰; 1631~1700) 스님의 이 시는 선교를 두루 겸비했던 당대의 큰 선지식이 보여주는 삼매의 고즈넉함을 맛 볼 수 있다. 산길을 걷고 또 걸어 산 속 깊이가 다다른 시내가 흐른다. ‘석계(石溪)’는 돌이 많은 시내일 수도 있지만 물이 말라 밀바닥의 돌이 드러나 있는[水落石出] 겨울 강의 경치 일 수도 있다. 동사(過)를 통해서 징검다리를 건너는 스님의 경쾌한 모습이 쉽게 그려

진다. 등성등성 자라고 있는 대나무 숲길로 통하는 ‘세경(細徑)’은 많은 사람들이 다녀 잘 닦여진 산의 오솔길이 아니다. 들짐승이나 새가 다니는 작은 길[鳥路鼠道]로 사람의 자취가 드문 한적함을 선사한다. 얼마나 오솔길 따라 걸었을까? 가사(歌)가 되어 버렸다. 그것도 그저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이 아니다. 스님은 솔가지에서 떨어지는 이슬방울을 학이

흔들었다 한다. 이미 솔가지에 앉아 이슬을 떨어뜨리는 학과 그 학이 떨어뜨리는 이슬에 옷을 적시는 나는 돌이 아닌 것이다. ‘불각(不覺)’은 스님이 산에 들며 물아일체가 된 내면의 발현이다.

보통 스님들의 옷을 치의(緇衣)나 납의(衲衣)라 한다. 그런데 스님은 자신의 옷을 선의(衲衣)라 표현하였다. 불각(不覺)은 단순히 자연의 완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경행의 선정 상태에서 즐기는 산뜻한 한가함인 것이다. 석(石)·죽(竹)·학(鶴)·송(松)으로 써 오욕이 끼일 여지가 없는 청정한 선의 이미지가 뿜어져서 이루어 내었다.

새벽 예불 후 안행(雁行)하는 스님들을 비추는 새벽별이 유난히 총총하게 반짝인다. 그 별빛에 눈 푸른 초심자들의 서원이 영글어 비로자나 할배의 누런 가사자락에 축축이 스며든다.



원법 스님(문운사·문학박사)

Hanmaum Choir Festival

이 마음은 종지에 담으면 한공지요.  
큰 그릇에 담았다 해도 한그릇이요.  
바다만큼 담았어도 그저 한그릇일뿐.  
종지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그릇 한맘으로 돌아가네..

대행 큰스님 禪法歌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중에서

“일체가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All Beings, Living Together as One

한마음 음악제

2011.11.12 (토) 17:00 - 13(일) 15:00, 19:00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출연 | 황병기, 이춘혜, 이승숙, 전제덕

한마음선법합창단, 국립국악관현악단, 이화첼리,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니르바나오케스트라

| 주최·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 후원 |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서울특별시

| 티켓 |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예매 | 세종문화회관 인포샵 02-399-1114-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http://ticket.interpark.com

| 문의 | 한마음선원 031-470-3100 http://www.hanmaum.org